http://dx.doi.org/10.14774/JKIID.2014.23.5.165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3 No.5 Serial No.106 _ 2014. 10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의 건축 특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Its Implications in 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

Author

우창옥 Woo, Chang-Ok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박사수료
김문덕 Kim, Mun-Duk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Located in Dornach, Switcherland 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 (Rudolf Steiner-Halde, 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 1923-1935) is one of the architectural works created by Rudolf Steiner (1861-1925) who has studied and established the cognitive and spiritual aspects of a human being, and is often cited as being the founder of anthroposophy.

In fact, 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 is not as well known as Steiner's other works, and it is perceived as less important than his major works of architecture including "Goetheanum", "Modellbau zu Malsch", and "Rudolf Steiner Haus Stuttgart".

Nonethel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itself since it is an important piece of architecture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Steiner's late works, 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Waldorf School where various active educational activities are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 clearly exhib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ral space based on Steiner's anthroposophy as well as provides a window into promoting space efficiency by extending an existing building.

Moreover, it provides a good learning opportunity to find out about how Steiner's architectural disposition has changed and developed with the use of new materials.

With these points as a backdrop, the study aim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 Another important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gain insight into the architectural impl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influence 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 has had on Steiner's later works, by comparing his early works of architecture with those of his late works.

Keywords

루돌프 슈타이너, 도르나흐, 괴테아눔,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
Rudolf steiner, Dornach, Goetheanum, 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스위스 도르나흐에 있는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Rudolf Steiner-Halde, 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 1923-1935)은 인간의 인지적, 정신적인 부분을 연구, 정립한 인지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건축작품 중 하나이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1925년 사망하기 전까지 20여개의 건축작품을 남겼으며, 그 중 제1괴테아눔과 제2괴테아눔은 인지학적 특성이 잘 반영된 유기적인 건축물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은 슈타이너의 건축작품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괴테아눔, 말쉬모델하우스, 슈트트가르트 하우스와 같이 주요 작품에 비해 중요성을 떨어진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슈타이너의 후기 건축작품의 특성과 발도르프학교의 건축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축작품이기에 연구의 의미가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대한 기존 연구 자료들을 보면 자료 정리와 전체적인 건축물 연구로 박윤준(2005), 김종인(1997), 김홍룡·김성우(1990) 등이 있으며, 그의 인지학의 교육적 이론을 연구한 김미숙(2002), 정유경(1998)[1] 등의

1) 박윤준(루돌프 슈타이너 건축의 인지학(anthroposophy)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박사논문, 2005), 김종인(안트로포조피哲學과 루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은 교육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으로 건축의 전반적인 특성을 설명하거나 공간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연구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한 건축적인 특성이 건축 작품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표현되는지 알아볼 것이며,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을 통해서 슈타이너의 초기 건축작품의 특성과 후기 건축작품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 변화가 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은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한 건축공간의 특성을 잘 드러나게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료에 대한 슈타이너의 건축적인 성향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연구자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항을 배경으로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의 건축 특성 분석을 연구의 목표로 삼는다.

또한 슈타이너의 건축물 중 브로드벡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이 미친 영향에 그 건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 논문의 부수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 특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한다.

우선 대상 건축물에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건축 특성과 장소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를 중요시 한다. 여기에는 슈타이너 건축의 시기와 장소에 따른 영향도 상호 관련하여 고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대상 건축물의 외형적이고 기본 용도만이 아닌 그 배후에 있는 원리와 특성 이해를 위한 사항을 고찰해 본다. 이를 위해 대상 건축물의 건축적 의미. 즉 이전의 작업에서 나타난 건축적 특성과 이 후 작업에 끼친 영향과 그 중요성을 고찰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문헌 조사를 통한 연구 대상의 인문적, 물리적, 장소적 배경을 고찰하고 도면과 사진 등에 의해서 대상 건축물을 분석하고 방문을 통해 건축적 특성과 의미를 고찰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에 의해 전개과정과 내용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대상 건축물의 형태 및 공간구성에 나타난 건축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리를 찾아 슈타이너의 건축 특성이 어떻게 발전하고 영향을 주었는지 대상 건축물의 의미를 고찰한다.

돌프 슈타이너의 建築에 관한 硏究, 대한건축학회학회지, 100, 1997), 김홍룡・김성우(rudolf steiner의 건축이론과 작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10권 제1호 1990), 김미숙(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2002), 정유경(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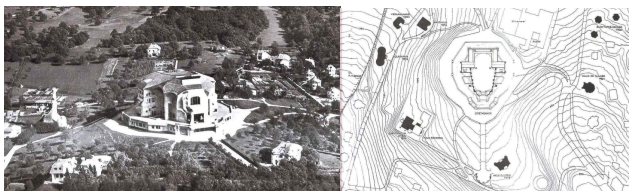
2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2](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의 배경

사람들의 감각과 독립된 정신적 지각능력의 계발을 연구하는 이론으로 '인지학'은 오스트리아의 철학자·과학자·예술가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안했다.[3] 인지학은 그의 평생 과업으로서 종교, 철학, 인문과학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완성되었다. 인지학은 결국 인간과 관계되는 가능한 모든 정신적인 내용들을 내포하며, 그 연구 방법은 과학적인 형식을 빌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과학이며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 및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다양한 미래 대안적인 정신과학분야에서 인용되고 논쟁의 근원이 되어 오고 있다.[4] 또한 건축에서도 인지학의 의미를 내포하여 다양한 건축 작업을 진행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2.1. Rudolf Steiner Halde

루돌프 슈타이너 언덕(Rudolf Steiner Halde)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스위스 도르나흐에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가 독일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던 때 치과의사이던 헤른 그로스하인쯔(Herrn Grosheintz) 박사가 슈타이너를 위해 인지학 공동체를 위해 제공된 부지이다. 이에 따라 1913년에는 새로운 부지 환경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설계되었다.[5]

이렇게 생겨나게 된 곳을 지금은 루돌프 슈타이너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한 건축작품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공간이 지어지고 있다.



<그림 1> 스위스 도르나흐 Rudolf Steiner-Halde

2) 오이리트메움은 오이리트미를 배우고 연습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행하는 오이리트미의 어원과 의미는 오이리트미(Eurythmy)의 Eu는 좋은 흐름(good flow)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좋은 리듬, 좋은 동작이리고 이해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작 또는 조화로운 동작이라는 그리스적인 의미를 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슈타이너의 발도르프학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오이리트미는 유리드미 또는 표현율동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3) 브리태니커 사전

4) 김종인, 안트로포조피 철학과 루돌프 슈타이너의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13 n.2, 1997,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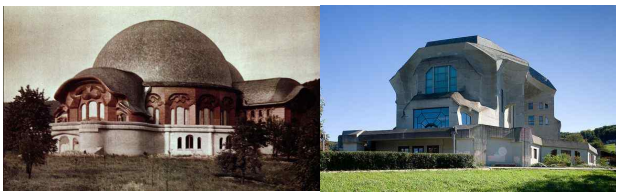
5) 박윤준, 루돌프 슈타이너 제1괴테아눔의 인지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Vol.6 No.1, 2006. p.27

루돌프 슈타이너 언덕은 1913년 9월 20일 마침내 스위스 도르나흐 언덕에 제1괴테아눔의 초석이 놓이게 된다. 슈타이너는 1914년 6월부터 그곳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여기서 슈타이너는 쉬지 않고 설계와 모형 만드는 일에 몰두하여 이 중 돔 형식의 대극장 건축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괴테아눔을 짓는 데에는 슈타이너뿐만 아니라 인지학회의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통해 빠르게 진척되어 1914년 4월 1일에 상량식을 거행하게 된다. 하지만 중간에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6년 후인 1920년 9월에 이르러 제1괴테아눔이 개관하게 된다. 그 후로 그 주변에는 부지를 제공한 그로스하인쯔의 주택인 둘덱 주택을 비롯한 부속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2.2.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의 건립배경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은 루돌프 슈타이너 언덕을 계획하기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로서 초기 부지 설계단계에서는 인지학 공동체에 따른 건축물에서 배제가 되어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1922년 목조건축물로 세워졌던 제1괴테아눔은 반대세력에 의해 콘크리트로 되어있던 기단부만 남기고 전소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슈타이너는 큰 충격을 받지만 인지학회 회원들과 다시 힘을 모아 제2괴테아눔을 축조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림 2> 제1괴테아눔과 제2괴테아눔

슈타이너는 인지학적인 특성을 건축에 적용하면서 또한 방화 등 안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브로드벡 하우스는 인지학적인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하게 된다.

슈타이너가 처음 인지학적 건축을 계획할 당시 연구하고 실험하였던 말쉬모델하우스처럼 제2괴테아눔을 축조하기 위한 건축적인 연구의 대상 건축물이었다. 재료의 실험과 기존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유기적인 건축의 특성이 새로운 재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그 부속건축물들이 건립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3.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의 건축 특성

3.1. 프로그램 및 지형상의 특성

(1) 프로그램 상의 복합성

브로드벡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은 슈타이너가 스위스 도르나흐에 괴테아눔과 부속건축물을 짓고 인지학적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장소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로 일반적인 스위스의 시골 주택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었다.

주변 인지학자들이나 건축가들은 인지학 공동체를 위해 일반적으로 오래된 건축물을 부수고 새롭게 인지학적 건축물을 계획하였으나 본 건축물은 슈타이너가 기존의 주택을 증축을 통해 오이리트메움과 아틀리에, 사무실,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등 프로그램 상의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본 건축물 정면을 기준으로 보면 프로그램 상으로 1층 오른쪽은 기존의 건축물로써 주택의 형태를 유지하여 방과 사무실, 베란다가 배치되어 있으며, 2층과 3층은 마찬가지로 주거의 기능과 현재는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자료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왼쪽 부분은 증축하여 가운데 정문을 사이에 두고 1층은 오이리트미 연습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강당으로 되어 있다. 오이리트미를 연습하는 공간은 높은 천정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해서 2층의 높이로 계획되었으며, 2층은 오이리트미의 연구와 인지학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아틀리에와 회의실,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다.

<표 2> 브로드벡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 층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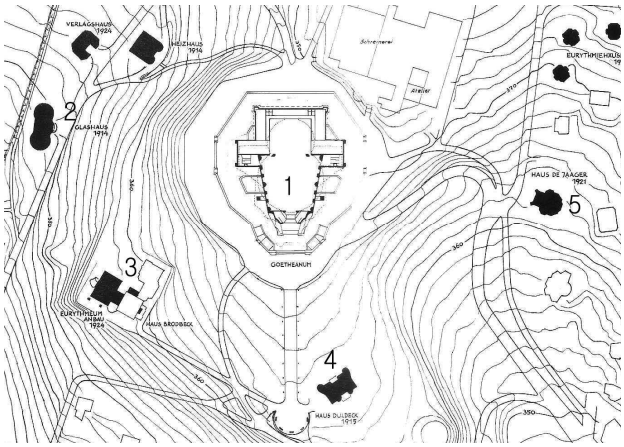
층	프로그램 내용	
	오이리트메움(개축)	브로드벡 하우스(기존 건물)
3층		방, 서재
2층	아틀리에, 회의실, 발코니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1층	오이리트메움 강당	방, 서재, 베란다

(2) 지형적인 영향

네덜란드 헤이그(Netherlands Hague)에서 슈타이너는 1921년 2월 28일 있었던 그의 연설 중에 괴테아눔 근처에 서있는 오래된 건물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우리는 그것을 취득하기를 몹시도 희망한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목적이 뭐지?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인지학 공동체 건축물들의 모든 측면을 교란시키고 있다."[6]

6) Zimmer Erich, Rudolf Steiner als Architekt von Wohn-und Zweckbauten,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leben, 1985 p.177



<그림 3> 괴테아눔과 주변 부속건물
1. 제2괴테아눔, 2. 글라스하우스, 3. 브로드벡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 4. 둘덱주택, 5. 야거주택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은 둘덱 주택과 글라스 하우스 사이의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위치는 괴테아눔과 그 부속건축물의 배치 상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로 설계되어야하는 위치에 있었다.<그림 3의 3번 건축물>

인지학회 사람들은 다른 위치상의 건축물처럼 대지위에 새롭게 계획할 것을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슈타이너는 이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을 중요하게 언급하며 건축물의 모든 측면에 대한 연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사실 지형적으로 볼 때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은 하나의 감상 포인트에 위치해있다. 슈타이너의 건축작품들 사이의 길 끝자락에 있으면서 언덕위에 솟아올라 있다.

괴테아눔으로 가는 언덕길을 오르게 되면 괴테아눔과 주변 건물들이 차츰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괴테아눔이 보여지게 된다. 그 사이에 우뚝 솟은 모습으로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이 보인다.

바로 이러한 위치상의 중요함으로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성과 괴테아눔과 인지학 공동체의 주변건축물들과의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3.2. 평면과 입면 구성상의 특성

(1) 대칭과 비대칭

사람들은 어떠한 개념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개념을 설정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밤이 없다면 낮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대칭과 비대칭도 서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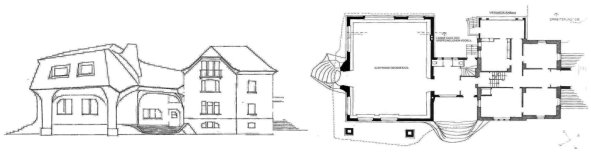
슈타이너는 같은 맥락으로 건축특성에 대해 수직으로 긴 형태와 수직으로 기울어진 형태의 내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직으로 기울어진 형태는 비대칭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보이지만 이와 반대로 수직으로 긴 형태는 순수한 대칭으로의 힘을 보여준다.[7]” 이러한 상반된 힘에 대해 슈타이너는 새로운 대칭축의 형태로 보고 이러한 대칭축에 대해서 유기적인 대칭축을 통찰함으로써 “발전해 나가는 대칭축”이라고 하였다. 슈타이너는 단순한 형태로의 대칭이 아니라 상호간의 작용을 통해 서로의 특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다.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의 경우 이러한 대칭축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변형된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칭, 비대칭이 두 개의 다른 형태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실내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며 움직이고 또한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서 기존건축물인 오른쪽 공간은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안정되고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공간으로서 1층과 2층, 3층은 방과 서재, 베란다 등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서 안정되고 균형 잡힌 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왼쪽의 새롭게 증축된 공간은 1층의 오이리트미 연습실과 의상실, 2층은 아틀리에, 회의실 등으로 활동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으로서 주거 공간과 상반된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공간을 계획함으로서 슈타이너는 대칭과 비대칭의 개념을 외형적인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대칭과 비대칭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 4>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 입면과 평면

(2) 형식의 조화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보면 오른쪽 본관은 기존의 양식을 유지하며 정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새롭게 증축된 공간은 유기적인 형태로서 오이리트미의 기능적인 부분과 조화롭게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형태는 슈타이너가 인지학적 특성에

7) “대칭적인 것과 더불어서 비대칭적인 것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루돌프 슈타이너의 건축물 차원의 내적변화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수직으로 긴 평면과 더불어 수직으로 기울어진 평면의 내부에서 설명되어지는데 즉, 수직으로 기울어진 평면에 있어서는 비대칭적으로 변형하는 변화의 힘이 나타나고, 이와는 반대로 수직으로 긴 평면은 순수한 대칭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Zimmer Erich, Rudolf Steiner als Architekt von Wohn-und Zweckbauten,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leben, 1985 p.190) 요약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호두는 껍질을 가지고 있다. 호두껍질은 호두 속을 둘러싸면서 호두 표피를 형성하고, 결국 그 형태를 따라 호두 속으로부터 생성된 호두가 된다. 이 껍질은 호두 속이 있는 그대로 생길 수밖에 없다.”[8]라고 말한 것과 같이 건축 특성에서도 같은 의미가 적용되고 있다. 건축물의 형태는 내, 외부가 별개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기능적인 특성이 외부에서도 드러나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다.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건축물은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을 증축한 상황으로 주거의 기능적인 요소와 오이리트미 연습실의 공공적인 기능으로 기능상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상의 차이를 이질적인 서로 다른 공간으로의 분리가 아닌 구성상의 조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고 있다.

앞서 호두껍질의 의미를 언급한 것과 같이 내, 외부의 동질성을 통한 디자인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외부에서부터 공간을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내부에 들어서도 명확한 기능적인 공간을 이해하게 된다.

기존 건축물에 오이리트메움을 결합시킨 형태로서 오이리트메움의 공공적인 부분을 유기적인 형태로, 그리고 생활의 목적인 주거부분을 정형적인 형태로서 서로 다른 대립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상의 차이를 슈타이너는 기존 건축물의 내적, 외적인 의미의 정형적인 형식을 유지하고 그리고 새롭게 계획된 증축 건축물도 내적, 외적인 유기적인 형식을 유지하며, 가운데 연결고리를 통해 조화로운 형식상의 결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내외의 기능적, 형식적인 통일과 서로 다른 성격의 형식상의 조화를 이룬 슈타이너의 건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 초기안(좌)과 최종안(우)

3.3 오이리트미의 공간으로의 영향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 증축공간의 주요 기능은 오이리트미 연습공간이다. 슈타이너가 오이리트미에 맞게 모델초안을 완성하기 전에 다른 건축가에 의해 예비 연구가 제시되었는데 다각형의 평면 설계 초안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다각형의 설계는 오이리트미 공간을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9] 처음에는 슈타이너가 거주하면서 작업하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지만 다각형 평면의 설계를 통해 오이리트미 공간에 충족한 공간으로서 의식 되었으며, 이로써 오이리트미 공간으로 설계가 진행되게 된다. 하지만 슈타이너는 이 공간을 직사각형의 형식으로 설계하게 되며, 그는 슈트트가르트 오이리트미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형태는 유기적인 건축양식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건축에서의 대칭적인 형태는 추상적인 사고로서 실제적으로는 비대칭의 요소로서 다양하게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 건물과의 조화와 현실적인 문제와의 고민에서 나타난 해결책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오이리트미의 공간은 기존 건축물에서 옆으로 증축되며, 오이리트미 연습실로 인해 기존에 계획되었던 슈타이너의 작업실은 2층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오이리트미 공간은 기존 건축물의 왼쪽에 위치하고 이러한 구획설정을 통해 방향을 잡아주는 요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슈트트가르트 오이리트미학교에서 나타난 건축 특성과 같이 직사각형의 형태이지만 앞-뒤, 오른쪽-왼쪽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입구의 위치, 창문의 배열 등을 통해 명확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건축물과 새롭게 증축된 건축물과의 긴 중간 공간은 같은 의미로서 공간을 분할했으며, 이 중간 공간은 1층에서는 오이리트미 연습실 입구와 의상실로 연결되며 2층에서는 작업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되었다.[10]

이것은 결과적으로 비어있는 측면을 따라 옛 건축물과 새 건축물 사이의 선명한 분기점을 만든다. 이러한 분기점은 서로 다른 공간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며, 이 부분에 지붕을 연결하고 벽감의 형식을 이용해 입구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계획된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은 유연한 양식으로 연결된 형식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간을 연결해주는 방식은 향 후 괴테아눔과 또 다른 오이리트미 공간을 계획하게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형적 형태의 근간이 되며, 벽체, 창문의 위치, 장식 요소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많은 영향을 준다.

4.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Eurythmeum Anbau zu Haus Brodbeck)의 의미

브로드벡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이 갖는 의미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사고에 의한 건축적 특성의 표현방법으로 새로운 재료에 대한 방법론을 엿볼 수 있다.

8) 김종인, 안트로포조피哲學과 루돌프 슈타이너의 建築에 관한 硏究, 대한건축학회학회지, 100, 1997 p.53

9) Zimmer Erich, Rudolf Steiner als Architekt von Wohn-und Zweckbauten,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leben, 1985 p.178

10) Ibid., p.178

그리고 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기존 건축물과 증축된 건축물과의 양식적 조화를 통해 인지학적 특성의 건축물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4.1. 재료에 따른 전환적 의미

(1) 콘크리트

제1괴테아눔(1913-1920)과 제2괴테아눔(1924~1928)을 기준으로 슈타이너의 건축적인 형태가 변화하게 된다.

인지학을 바탕으로 한 건축적인 특성은 변함이 없지만 유기적인 형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재료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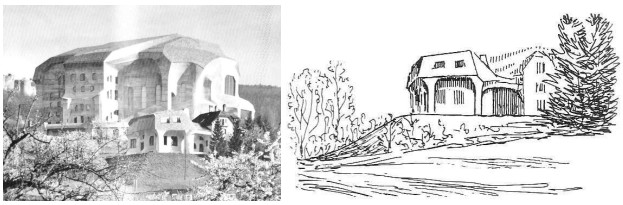
제1괴테아눔은 목조건축물로 원형이나 곡선, 다양한 조각 등 유기적인 형태와 상징적인 조형물을 표현 할 수 있는 재료로서 목재를 사용하여 인지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화재와 계절에 따른 변형 등 보존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재료로의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그 시도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콘크리트는 순수성, 조소성, 안정성, 감각성[11]을 보여주는 재료로서 슈타이너는 이를 통해 새로운 특성을 연구하여 표현하고 있다.

<표 3> 콘크리트의 성격

특성	내 용
순수성	둥근 거푸집에서는 둥글게, 모난 거푸집에서는 모나게, 표면이 거친 거푸집에서는 거친 콘크리트 표면이, 매끈한 표면의 거푸집에서는 매끈한 표면이 나타나는 것이 콘크리트이다. 또한 콘크리트는 구조체 자체이며 마감이므로 더함도 덜함도 없는 진실성 그대로 표현되어진다.
조소성	콘크리트는 조소성이 우수하여 원하는 모든 형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조형적인 건축물에 아주 적합하다. 작은 형태뿐만 아니라 커다란 형태를 이음 없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듬직한 모습으로 때로는 날렵한 모습으로 건축가가 디자인한 대로 원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안정성	콘크리트는 구조재이면서 마감재로서 적절한 유지관리가 수행된다면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이므로 차분하고 듬직하며 방어적이고 평안함을 내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감각성	콘크리트는 무거움, 두터움, 듬직함과 방어, 보호, 안정감, 평화로운 느낌을 주거나 때로는 무표정, 차가움의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긴장과 날카로움으로 카리스마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2괴테아눔은 조형성이 잘 나타난 노출콘크리트 건축물로서 이전의 고전주의 건축양식과 결별하고 모더니즘의 노선을 걷게 된 건축물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리는 건축물로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며, 최초의 노출콘크리트 건축물로서 내 외부에 노출콘크리트 마감을 시공한 사상 최대의 예술적 건축물이다. 이렇듯 제2괴테아눔이 콘크리트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된 배경은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에서 실험하고 연구한 재료의 의미를 알 수 있으며, 또한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의 외부형태에서 보여지는 추상적인 형태는 제2괴테아눔의 축조를 위한 실험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듯이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과 제2괴테아눔

(2) 목재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한 초기작품을 보면 목재를 사용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괴테의 자연철학에 대한 이론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자연물인 식물성장과정의 표현방법을 목재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목재를 사용하는 범위도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건축작품들은 기단을 제외한 부분을 목재를 이용하여 내외부에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 이후 새로운 재료인 콘크리트를 전반적으로 건축에 사용하게 되면서부터는 내부 공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재를 사용하는 부분으로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인 바닥, 문, 창과 창틀, 난간의 핸드레일 등으로 축소해서 사용하는 걸 알 수 있다.

< 그림 7 > 목재 사용하는 부분의 변화

제1괴테아눔(윗줄),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가운데줄),
제2괴테아눔(밑줄)

그리고 콘크리트의 차가운 성질과 각진 형태로 인해 삭막해질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바닥과 천정에 목재를 이용하여 완화하고 있으며, 천정은 평평한 천정이 아닌 둔각을 이용한 다각형 형태로 목재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한 초기작품에서는 자연물의 직설적인 형태의 조각과 형상을 통해 인지학적

11) http://blog.naver.com/choiy2j/120151147626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후기에 들어서는 콘크리트라는 재료와 제한적인 목재의 사용을 통해 정제되고 추상적인 형태로서 슈타이너가 추구하는 인지학의 유기적인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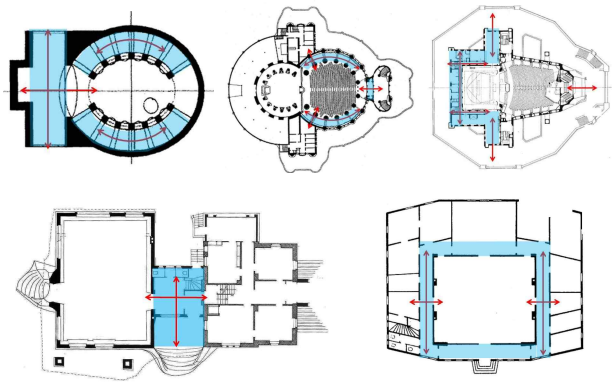
4.2. 공간 조합방식의 의미

(1) 분기점을 이용한 공간구성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증축[12]이라는 형태이다. 슈타이너와 그의 협력자들이었던 인지학자들은 대지 위에 그들만의 이론과 사상을 바탕으로 건축을 디자인하고 있었지만 본 건축물은 인지학 사상의 성지인 도르나흐의 중요한 대지 위에 있던 건축물로서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증축의 형태로 기존의 건축양식과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특성이 잘 나타난 건축물이다.

본 건축물의 조화로운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운데 부분으로 기존 건축물과 증축된 건축물의 분기점이 되는 사이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의 분기점이 되는 공간을 통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연결되며, 완충작용을 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분기점의 형태는 본 건축물에서 건물과 건물의 분리와 연결을 해주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말쉬모델하우스와 제1괴테아눔에서는 메인 무대공간과 다른 공간을 연결해주고 분리해주는 요소로서 회랑이 이러한 요소로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슈트트가르트 오이리트미학교에서는 가운데 오이리트미 강당과 다른 실들 사이에 둘러 있는 복도의 형태가 같은 의미를 담고 계획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8 > 분기점을 이용한 공간구성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말쉬모델하우스(1909), 제1괴테아눔(1920), 제2괴테아눔(1928), 슈트트가르트 오이리트미학교(1924),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1924)

12) 같은 지붕마루 내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대지 내에서 별채를 추가 신축하는 것도 증축이라 하는 경우가 있다.(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2011)

(2) 장소의 형성

인지학을 정립한 슈타이너는 많은 강연과 모임 등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슈타이너는 강연과 모임을 위한 공간을 주로 계획하였으며, 그 후 다방면으로 교육, 의학,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인지학의 이론을 전파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에서의 특징으로서 기존 주거 공간에 오이리트미 연습실을 삽입함으로서 사람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주거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연구하고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작업은 그가 강연에서 주장하듯이 인지학의 교육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로 복귀시켜 어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바램에서 이러한 장소를 만들고자 함이다.

그리고 슈타이너가 인지학을 통해 사람들을 일깨우고자하는 바램으로 설립된 교육공간인 발도르프 학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오이리트미 교육을 하듯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3. 슈타이너의 작품과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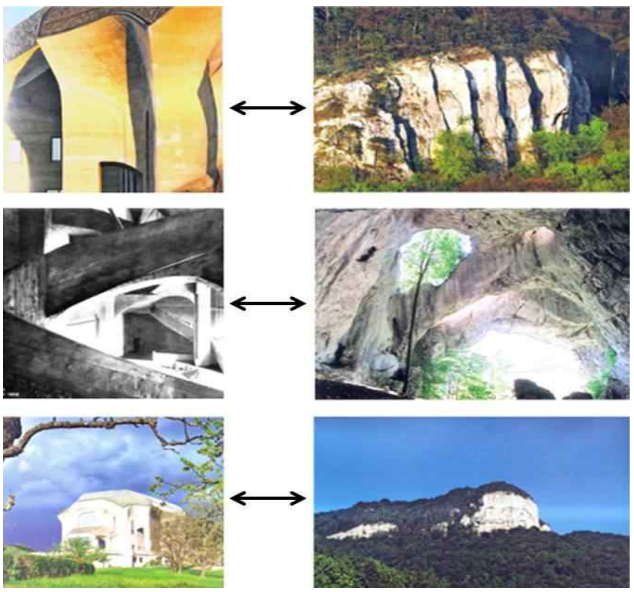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은 슈타이너의 작품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다. 그러다보니 연구자들의 시선에서 멀어져있는 건축작품이었다. 하지만 슈타이너의 유기적인 건축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이며, 슈타이너가 실제 건축물을 바탕으로 실험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건축적 특성을 나타낸 기초가 되는 작품으로 그 중요성이 있다.

슈타이너는 처음 괴테 연구자로서 자연 생성의 흐름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여 이를 인지학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삶의 대한 인지적, 정신적인 깨우침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표현이 유기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향으로 초기 건축특성이 곡선을 사용한 유기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건축이 정제되고 성숙되는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슈타이너의 유기적인 건축특성은 단순히 형태적인 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실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유기적인 형태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슈타이너의 특성이 반영된 부분인걸 알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의 자연환경을 건축물에 적용하여 의미 없는 유기적인 곡선의 사용이 아닌 각 지역

의 자연환경을 본인만의 표현으로 재질과 색감, 형태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건축적인 성향의 다양한 변화에는 브로드 벡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시도와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루돌프 슈타이너 건축작품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5.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의 건축 특성과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은 슈타이너 건축작품의 성향이 변화되는 과정의 건축물로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향 후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닌 중요한 작품이다.

둘째,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은 슈타이너가 추구하는 유기적 건축의 형태로서 기존 건축물의 정형적 형태와 조화를 통해 정형과 비정형의 이질적인 다른 성격을 슈타이너만의 방식을 통해 재조합함으로써 향 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인지학적 건축특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슈타이너의 초기 작품을 보면 목조건축물로서 곡선을 이용한 유기적인 건축양식을 띄고 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 목재를 이용한 자연물의 직설적인 형태로 조각이 되어있다. 이러한 목조건축물은 화재로 인해 새로운 재료가 사용되게 되었으며,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을 통해 재료의 대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연물의 직설적인 형상을 추상적인 형태로 정제시켜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목재는 내부의 상징적인 요소와 사람들이 접촉하는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넷째, 공간 조합 방식을 보면 증축에 따라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조합함에 있어 가운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분기점 공간을 두어 서로 다른 기능적인 공간에 적절한 경계와 연결통로의 역할이 되어 각각의 공간을 분리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간적인 조합의 형태는 슈타이너 최초의 건축 작업인 말쉬모델하우스에서 회랑의 형태로서 완충적인 공간이 나타나다가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의 주요 기능을 보면 오이리트미를 연습하는 연습실의 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 공간은 기존 주거의 기능이었던 사적 공간을 공공적 기능으로 변화시켜 장소의 개념을 도입한 부분으로 슈타이너가 주장하는 인지적, 정신적인 부분을 일깨우는 장소로서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여섯째,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은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새롭게 나타내고 있다. 건축형태만 본다면 그냥 특이한 형태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주변 자연의 환경 즉, 돌, 공기, 나무 등을 건축물에 흡수시켜 동일화시키고 있으며, 건축물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형태에서도 자연환경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브로드벡 하우스와 오이리트메움은 증축이라는 형태로 서로 다른 공간에 대한 조화로운 공간 조합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슈타이너의 건축에 있어 새로운 재료의 실험, 장소로서의 공간 기능 연구, 유기적 건축의 정제된 조형미 등 많은 부분에서 실험하고 연구를 통해 많은 고민과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슈타이너의 건축작품 중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건축물을 연구, 분석하였다.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다른 여느 작품 못지않게 슈타이너의 인지학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 있으며, 또한 슈타이너 사후에 그의 건축적인 특성을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새로운 재료와 주어진 공간 등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슈타이너의 건축작품뿐만 아니라 사후 인지학 건축가들이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건축특성을 어떻게 계승하고 적용하여 인지학 건축물을 디자인하게 되었는지 연구하는데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고야스 미치코, 아게마스유우지, 슈타이너 학교의 예술로서의 교육, 김수정 옮김, 밝은누리, 2003
2.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2011
3. Jolanthe Kugler, Architekturfuhrer Goetheanumhugel, Die

Dornacher Anthroposophen-Kolonie, Niggli, 2011
4. Kenneth Bayes, Living Architecture, Anthroposophic press, 1994
5. Neider, Andreas, Harald Schukraft, Rudolf Steiner in Stuttgart, Belsel, 2011
6. Walter Kugler, Simon Baur, Rudolf Steiner in Kunst und Architektur, DuMont Buchverlag GmbH, 2007
7. Wilfried Hammacher, Der goetheanum-bau in seiner landschaft, rudolf steiners plastische architektur, dornach/schweiz, baag druck & verlag AG, arlesheim, 2006
8. Zimmer Erich, Rudolf Steiner als Architekt von Wohn-und Zweckbauten,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leben, 1985
9. 김미숙,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 연구, 성신여자대 박사논문, 2002
10. 김혜연·김광호, 진달래, 어린이 도서관의 전인적 치유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07
11. 김종인, 안트로포조피哲學과 루돌프 슈타이너의 建築에 관한 硏究, 대한건축학회학회지, 100, 1997.2
12. 박윤준, 루돌프 슈타이너 건축의 인지학(anthroposophy)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05
13. 박윤준, 루돌프 슈타이너 제1괴테아눔의 인지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Vol.6 No.1, 2006.8
14. 볼프강 자스만스하우젠, 아동발달이 교과과정을 결정한다, 강남대, 인문과학논집, 창간호, 1996
15. 정유경,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8
16. http://blog.naver.com/choiy2j/120151147626
17. http://www.steinercenter.org/

[논문접수 : 2014 08. 30]
[1차 심사 : 2014. 09. 29]
[게재확정 : 2014. 10. 10]